

한국어 목적격조사의 실현문제에 대하여*

조신건·김령

Zhao Xinjian, Jin Ling (Shanghai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The Occurance Study on Korean Accusative Case Particles

Abstract: Korean accusative case particles have been studied for a long time, with numerous research achievements, but there are still a lot of controversial issues. In this study, the history of Korean case particles can be roughly divided into four stages. Considering the rationality of the third stage and adopting the rational analysis of cognitive linguistics and linguistic typology, the research results would be more better. Therefore, this study takes the issue of occurrence in more focused study of accusative particles as the object, and investigates the condition and motivation of the occurrence of Korean accusative case particles. It found a continuous route that is “necessary appearance < positive appearance < negative appearance < necessary disappearance”, which can be explained to a certain ext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conicity theory of cognitive linguistics and the markedness theory of language typology. Some alternatives to the related research from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 이 논문은 국가과학사회프로젝트(15BY155)에 의해 진행된 연구결과의 일부분이다.

Key words: accusative case particle, occurrence, 9 types, iconicity, case marking theory

1. 머리말

한국어로 문장을 조직할 경우에 격(格)이 기초적인 역할을 하기는 하나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이른바 격조사를 사용하지 않고도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주지한 사실이다. 이 현상이 바로 격조사의 실현문제이다. 그런데 격조사의 실현문제는 쉽사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으로 인한 격조사 속성 판정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다. 이 방면에 있어서 학계에는 이미 많은 성과들이 쌓였지만 그 래도 계속 탐구해야 할 것들이 많다.

격조사의 연구사를 보면 한국어 격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4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 ① 서양 선교사들의 연구로부터 안병희(1966)까지의 설립기
- ② 안병희(1966)¹⁾부터 목정수(1998) 등까지의 부정격 시기²⁾
- ③ 목정수(1998)부터 엄정호(2011)까지의 해체기³⁾

-
- 1) 언드우드(1890) 등이 격조사를 연구하는 과정에 이미 격조사의 비실현현상을 지적하기 시작하였다. 다만 안병희(1966)에서는 이런 현상을 골라서 단독적으로 논술하여 개념화하였다. 이런 작업의 연구사적 의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제2단계의 본격적 시작시점을 이렇게 정한 것이다.(김민국, 2016)
 - 2) 김광혜(1981), 이기동(1981), 민현식(1982), 김지은(1991), 선우용(1994) 등 학자의 성과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남순(1988)의 업적은 유달리 컸다고 한다.(김민국, 2016)
 - 3) 한정환(1999), 고석주(2001) 등의 연구성과도 있다. 이들 학자는 계속 이런 방면에 서 탐구하고 있으며 중요한 성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④ 엄정호(2011)부터의 유형론적 신시기⁴⁾

1단계에서는 격조사의 실현문제를 간단하게 언급했고, 2단계부터 실현 문제는 격조사 연구의 중심과제가 되었으며 3단계에서는 실현문제의 파괴력을 고려해서 전통적 격범주를 부정하거나 크게 고쳤고 4단계에서는 격범주를 유지하면서도 새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등장하였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한국어 조사의 연구사를 4단계로 나누었지만 각 단계의 성과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각 단계에서 학자마다 한국어 격조사의 부동한 특징을 보여주었음을 말하고 싶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전의 성과를 흡수하여 좀 더 새로운 결론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다.

인지언어학과 언어유형론이 등장하면서 더 깊이있고 광범위하게 언어사실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연구방법을 제공해 주었다. 한국어 격조사의 실현 문제는 문법적 형태와 사용자 인지의 관계도 반영할 수 있으므로 이것은 언어의 도상성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고, 세계의 많은 언어를 대상으로 각종 언어유형으로 귀납하는 유형론에서의 격기능 관점도 우리가 한국어 격조사의 기능을 분석하는 데 해야 할 점이다. 이 글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한국어 목적격조사의 실현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목적격조사는 격조사에서의 불가결한 요소로 그 실현성도 독특한 특징을 보여준다. ‘밥 먹었니?’라는 말에서 보여주듯이 목적격조사 없이도 술어와 목적어 관계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런 문장에 삽입할 수 있는 이른바 ‘를’ 형태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는 오래전부터 학계에서의 관심을 받아왔다. 해체기 단계에서의 주장처럼 ‘를’은 격관계와 상관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상관있으면서 다른 기능도 담당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다. 즉, 이 문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더 정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4) 엄정호(2011)에서 유형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기능주의적 격 정의를 고찰하였는데 격조사라고 하여 격만을 표시한다고 가정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하였다.

말뭉치의 발전과 이론적 탐구의 발전에 따라서 우리는 목적격조사‘를’과 관련된 많은 현상을 찾아낼 수 있고 더 넓은 시야에서 고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의 연구에서 고찰하지 않았던 언어사실을 계속 분석하고, 다의성과 동음이의성의 쟁점도 새로운 이론의 각도로 해결하고 인지언어학의 방법으로 좀 더 심도있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목적격조사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 목적격조사의 실현문제만 중심으로 분류하고 설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 외에 실현성의 대칭성을 요약하고 그 과정에서 인지언어학의 도상성과 언어유형론의 격표기설을 기초로 목적격조사의 특징을 고찰하기로 한다.

2. 목적격조사의 실현문제

앞에서 말하였듯이 실현성은 목적격조사의 본질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여야 목적격조사의 본질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를’의 실현 양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경우가 있다.

2.1. 일상생활에서의 간단문: 격표기의 불필요성

한국어의 격조사는 꼭 모든 격 위치를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일상생활에서 비실현 현상이 빈번하게 목격된다. 이런 경우의 사용조건과 원인에 대한 고찰은 우리가 다른 경우를 이해하는 데 기초적 작업이 될 수 있다. 다음은 한국어 드라마에서 나오는 대사들이다.

- 맛있는 거(를) 사 먹고 갈게.

○ 저녁(을) 안 먹었으면 같이 해.⁵⁾

위에 예시한 말들은 다 기초어휘인 ‘먹다’가 들어간 말들이다. 특이한 점은 ‘먹다’ 앞에 ‘먹다’의 목적어 성분이 전부다 이른바 목적격조사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것은 바로 목적격조사가 있는 표현이 일반적인가, 아니면 목적격조사가 없는 표현이 일반적인가 하는 것이다.

아는 바와 같이 유형론에서 일반적이고 무표기적인 어순을 확립하는 데 보통 3가지 기준을 사용한다. 즉, 고빈도 기준, 무표기 기준, 문맥 중립 기준 등이다. 목적어의 형태유무를 확립하는 데도 이런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Whaley, 1997; 陆丙甫, 金立鑫, 2016)⁶⁾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 목적격조사 유무의 기초성을 물어보면 거의 이구동성으로 ‘라면 먹어’는 일반적인 표현이고, ‘라면을 먹어’로 한다면 어감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난다고 한다. 다시 말해, 드라마에서 보여준 ‘라면 먹어’ 같은 무표기형 표현은 한국어에서의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런 표현은 빈도가 높고, 형태도 없으며 특수한 문맥도 필요없는 말이어서 앞에서 말했던 3가지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목적격조사가 없는 이런 유형의 말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것 같다.

목적어가 술어와의 거리가 짧고,

구성에 있어서 수식하는 성분이나 복잡한 다중적(多重的) 성분이 없어

5) 예문들은 전부다 드라마 〈매디컬 탑〉 1부에서 나온 것이다.

6) Whaley(1997)와 陆丙甫, 金立鑫(2016)에서 지적하였듯이 이 3가지 기준을 사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인 어순을 확립할 때 이런 기준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 간단하며,

일상적인 내용이라서 추리하는 데 있어서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것⁷⁾ 등이다.

2.2. 합성어에서: 절대적 비실현성

이익섭 외(2001)에서 보여주듯이 한국어의 합성어에는 통사적 조어방식이 여러가지 있다. 그중에 ‘명사+동사’라는 목적어와 술어관계의 합성어도 나타난다. 예를 들면

○ 본받다, 힘쓰다, 등지다, 선보다

윗말과 같은 합성어는 구조적으로 보면 목적격조사를 첨부한 다음과 같은 구를 줄여서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본을 받다, 힘을 쓰다, 등을 지다, 선을 보다

그런데 목적격조사를 붙인 이런 구들이 나타내는 의미는 목적격조사가 없는 합성어와 차이가 분명하다. 예를 들면, ‘본을 받다’는 말은 한 사람이 대표적인 것을 받는다는 복합적인 뜻인 데 반하여 ‘본받다’는 그런 구체적인 뜻을 나타내지 않고 의미가 압축되어 ‘모방하다’는 간결한 뜻이 된다.

○ 위인전을 읽는 것은 그들의 행동을 본받으라는 것이다.

7) 예를 들면 김충실(2016)에서 지적하였듯이 생명도로 보면 주어가 생명도가 높고 목적어가 낮으면 격조사가 비실현기 쉽다. 이것은 이런 말들은 일반적인 인지과정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윗 문장에서 사용되는 타동사인 ‘본받다’라는 말은 동사구인 ‘본을 받다’라는 말을 줄여서 된 말임을 형태로부터 알 수 있다. 이것은 바로 높은 층위에서 사용되었던 언어적 단위가 낮은 층위에서 사용되는 언어적 단위가 변한다는 문법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주지한 바와 같이 문법화과정에 문법적 관계가 약화됨에 따라 의미가 농축될 뿐만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지중점도 달라진다. ‘본을 받다’고 말할 때는 ‘본’을 초점으로 삼아 똑똑하게 목술관계를 말하는 동기가 있으나 ‘본받다’고 말할 때가 되면 ‘본’을 특별히 강조하지 않고 이 단어의 새로운 전체적 의미에만 주의력을 기울이게 되는 인지방식의 변화가 있다. 위에서 보인 다른 단어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목술관계의 합성어에 목적격조사가 비실현된 이유는 언어사용자가 그 목적어를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3. 구어에서의 후치적 도치문: 적극적 비실현성

도치문은 여러가지 원인으로 일반적 어순과 다른 어순을 보여주는 문장 형식이다. 김유진(2011)에 의하면 도치문에는 전치문(前置文)과 후치문(後置文)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런데 전치문과 후치문은 목적격조사의 실현에 있어서 좀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이 절에서는 먼저 후치문을 고찰한다.⁸⁾

한국 드라마 대본⁹⁾을 통계한 결과 한국어의 구어 후치문에는 목적격조사가 별로 사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8) 그리고 도치문은 다시 문체에 따라 구어에서의 도치문과 서사어에서의 도치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구어에서의 도치문만을 고찰한다.

9) ‘달자의 봄’(1부), ‘별에서 온 그대’(1부), ‘메디컬 탐탐’(1부), ‘패션왕’(1부)의 대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한국어에는 전치형(前置型)도 있고 후치형(後置型)도 있지만 목적어 도치문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여기서 보여준 예문은 거의 그중의 대부분이다.

- 몰랐어요? 내가 계속 달자 씨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 (<달자의 봄>)
- 또 갈아치웠다고! 요거! (<매디컬 탐탐>)

張伯江, 方梅(1994)에서 말했듯이 일상생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어순으로 말하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특수한 경우에는 어순을 조절해서 말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화용론에서의 경제원칙(economy principle)과 명백원칙(clarity principle)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두 원칙은 짧은 시간에 가장 중요한 정보를 먼저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덜 중요한 정보를 덜 중요한 위치에서 뒤에서 말하는 것이다. 이로 봐서 후치문에서의 목적어는 먼저 말하는 서술어보다 말하는 사람이 특별히 강조해야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2.1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무형태로 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내용이 간단할수록 형태도 간단하다는 도상성 이론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2.4. 구조나 의미에 있어서의 복잡문: 격표기의 거시적 필요성

- 철수 \emptyset 말한다.

일상생활에서 뒷말과 같은 구조가 간단한 문장을 하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다. 물론 문맥에 따라서, 아니면 일반적인 관습으로 철수라는 사람이 지금 말을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주어와 술어의 관계(sv)가 아닌 목적어와 술어의 관계(ov)로도 이해할 있다.

- 철수가 말한다.
- 철수를 말한다.

동사 앞에 명사가 더 많이 나오게 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명사 간의 관계를 판단하는 근거를 제공하지 않으면 중의성을 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김지은, 1991)

○ 철수 동생 영희 사랑한다.

격조사를 붙여야만이 동사 ‘사랑하다’ 앞에 나온 세 개 명사의 관계를 똑똑히 보여줄 수 있다. ‘가’는 주어를 식별하는 표기이고, ‘의’는 수식의 관계를 나타내고, ‘를’은 목적어를 나타내는 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철수(가/의/를-) 동생(이/를-) 영희(가/를) 사랑한다.

이익섭 외(2001)에서도 언급한 이런 사실은 명사구가 동사구 앞에 나오는 언어에는 격표기가 필요하다는 언어유형적 추론의 반영이다. 여기서 목적격표기와 같은 문법적 (격)형태의 기능은 언어유형론에서 말하는 ICM (Indexing Case Marker)로 볼 수 있다(송재정, 2001). 즉, 이런 경우 사용하는 격표기는 동사와 관련된 명사 간의 역할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목적격조사를 사용하게 된 원인은 격 이외의 기능을 하기 전에 우선 선천적으로 부동한 격기능을 확인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2.5. 비정상적인 뜻을 나타낼 경우: 필수적 실현성

○ 담배(∅) 피우세요?

○ 담배를 피우세요? (이남순, 1998)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에게 일반적인 사실을 간단하게 물을 때면 위 예문

만 말한다. 그런데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겨서 상대방에게 물을 때면 아랫말을 사용하게 된다. 한국어에서는 이런 차이를 목적격 조사의 유무를 통해서 구별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목적격조사 있든 없든 간에 문장의 격관계는 변화가 없다. 격관계는 담배와 피우다의 관계이지 목적격형태가 있는가 없는가는 아니다. 바꿔 말한다면 목적격조사가 없어도 목적어와 술어의 관계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어에서의 이런 표현방식은 한국어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다. 터키어에서도 이와 비슷한 표현방식을 목격할 수 있다고 한다. 터키어에서는 한정성 있는 명사 뒤에만 목적격조사를 붙이고, 한정성이 없는 명사 뒤에는 영형태를 취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터키어에서는 ‘칠수는 한 마리의 소(를) 찾는다’라는 뜻을 나타낼 때, 만약 그 소는 이미 알고 있는 소라면 목적격조사를 붙이고, 그 소는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소라면 목적격조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한국어에 목적격조사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은 특별한 뜻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격조사도 목적격 위치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 자리에는 다른 격조사가 절대로 바뀌서 사용하지 않는다.

언어유형론에서는 이런 현상을 격기능의 구별기능이라고 칭한다. ICM에서 격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문법적 형태를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이런 경우에는 격관계가 아닌 의미특징과 같은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런 차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히 DCM(Differential Case Maker)이라고 개념화하였다(Comrie, 1981/1989; 송재정, 2001). 터키에 이런 현상도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격범주를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어에서도 이렇게 보수적으로 처리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2.6. 부정구문에서의 소극적 실현성

주지한 바와 같이 ‘-지 않다’와 같은 부정구문에서는 목적격조사가 삽입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 나는 물어 보지 않으면 얘기도 못해.
-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종말뭉치에서)

그런데 아래의 예시에서 보여주듯이 완전히 삽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 경기 후반에 들어서자 피구는 피곤한 표정으로 아예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를 않았다.
- 네 말대로 약을 지어 왔는데 왜 먹지를 않느냐? (세종말뭉치에서)

이런 구조에서 목적격조사를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하다’에서의 ‘않다’와 관련되는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화자가 해당 동작이나 행동(예를 들면 ‘움직이기’, ‘먹기’)을 하기 싫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인 연구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목적격조사가 이런 문맥에서 찾아내기 어려운 잠재적인 타동성을 특별히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때의 목적격조사는 사용이 아주 소극적인 것이다. 필자가 세종말뭉치에서 검색해 봤는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지 않다’ 가운데 목적격조사 ‘를’이 나타나는 용례는 0.4%로 절대소수만 차지한다.

	문어	구어	합계	비례
-지 않다	201,028	2,097	203,125	99.6%
-지를 않다	861	4	865	0.4%
계			203,990	100.0%

여기서 단 재미있는 한가지 현상을 예로 들어서 간단하게 분석해 보고자 한다.

○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내지를 얹으면
구워서 먹으리 (〈龜旨歌〉)

위와 같은 용법도 부정구문에서 목적격조사가 나타나는 또다른 한가지 경우이다. 어떤 정보를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하기보다는 시의 운율을 고려해서, 다시 말해 소절의 글자수를 보충하기 위해서 목적격조사를 삽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를’을 첨가해야 각 줄의 첫 소절이 세 글자씩 된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경우의 목적격조사의 기능은 또다른 형태의 구분형식(DCM)이 된다.

2.7. 구어에서의 전치적 도치문: 반반씩 실현성

앞에서 도치문에서의 후치문의 실현 특징을 고찰하였는데 여기서 전치문의 실현 양상을 고찰해 보자. 후치문에서는 목적격조사가 별로 나타나지 않지만 전치문에서는 목적격조사가 나타날 수 있다. 물론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음은 목적격조사가 비실현되는 문장들이다.

○ 그 사람 얼굴 너 기억나? (<별에서 온 그대>)

○ 너 누가 보냈어? (<패션왕>)

도상성 이론의 각도로 보면 구조가 복잡할수록 격형태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어순과 다른 전치문에서 구조가 복잡하고 길이가 상대적으로 긴 목적어가 있어도 목적격조사가 없이 문두에 나타날 수 있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원인은 전치된 목적어가 앞 문맥에서 이미 말했던 정보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윗 첫째 예문에서 ‘그 사람 얼굴’은 두 사람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화제인데 그 사람은 도민준이 오래 전에 자기의 신통력으로 구해준 사람이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그 목적어는 이미 화자의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그 사람 얼굴 너 기억나’라는 말에는 초점은 ‘기억나’에 있는 것이지, ‘그 사람 얼굴’이라는 내용은 특별하게 강조할 필요 없는 비초점 정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다음 말은 목적격조사가 실현되는 문장으로 윗 예문과 차이가 나게 된다.

○ 아저씨! 병원을 왜 이렇게 자주 와요? (<매디컬 탐탐>)

○ 안 똑같은 찌통을 왜 사입겠니? (<패션왕>)

윗 목적어는 구조상에 있어서 간단하지만 그 뒤에 목적격조사를 붙인 것이 특징이다. 이것이 바로 학계에서 흔히 말하는 목적격조사의 ‘특별지정’ 기능인 것이다. 즉, 첫 번째 예시의 말은 초점이 ‘자주 와요’에 있는 것이 아니며, ‘병원’이라는 정보가 있다. 화자가 초점 정보를 부각시키기 위해 ‘병원’ 뒤에 목적격조사를 붙이게 되었다.

그런데 전치문에서 목적격조사가 출현하는 원인은 한가지만이 아니라 다른 원인도 있다. 다음 예문들을 보자.

- 파리로 돌아가겠다고 아주 길길이 날뛰는 걸 내가 가까스로 잡아놔다. (<패션왕>)
- 결국엔 광혜그룹의 위상을 드높일 프로젝트라는 걸 아버님께서도 아시게 될 겁니다. (<매디컬 탐탐>)

윗말에는 목적어가 숨어 앞인 제자리에서 이동해서 주어 앞에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현상의 발생원리는 바로 언어유형론에서 말하는 ‘큰덩치를 변두리로’라는 원칙(大塊居外原則)으로, 문장의 균형을 잡기 위해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길이가 긴 문장성분을 문장의 변두리(문두 아니면 문말)에 놓는다는 것이다(陆丙甫, 金立鑫, 2016). 윗말들의 목적어도 구조가 복잡하고 길이가 긴 성분이므로 발화 시, 문두 위치에 놓인다. 그런데 이렇게 문두에 놓인 목적어에는 목적격조사가 잘 따른다. 이것은 덩치가 큰 성분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정보가 되어서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고, 또 생략하면 도대체 어느 문장성분이 되는지 구별하기 어렵다는 중의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8. 문법적 언어에서의 적극적 실현성

- 한 여자를 두고 두 남자가 연적이 되는 것.
- 양악을 정규 과정을 통해 익혀 가르치고 연주하는 것.

한국어에는 ‘를 위하다’ 등과 같은 문법적 언어 군단이 있다. 이런 언어는 주로 논리적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들에 의한 구조로 강한 서사어의 색채를 띤다. 남이 문장의 논리성을 더 똑똑히 확인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격조사+체언후 보조적 동사¹⁰⁾(赵新建, 2019)’의 완전한 양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런 문법적 언어에서 사용되는 목적격조사는 제목 같은 장면에서 잉여적 정보가 되어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 세종시 지역구 이해찬 "세종보 철거, 시간 두고 판단했으면"(조선일보)
- 공익신고, 변호사 통해 익명으로 하세요(네이버뉴스)

세종말뭉치에서 ‘막론하다’의 사용양상을 검색해 봤는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막론하다’ 앞에 목적어 성분이 출현되어야 하는데 목적격조사가 나타나지 않은 용례(1.3%)도 나타난다. 이것은 ‘막론하다’ 류 동사구는 일반적으로 목적격조사와 결합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유형	개수	비례
를/을 막론하고	663	98.7%
Ø 막론하고	9	1.3%
계	672	100%

최종적으로 조사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 이런 문법적 언어는 조사상당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그래서 위에서 보여준 이런 실현성은 문법적 언어의 문법화과정의 한결음이라 할 수 있다. 문법화과정에는 문법적 언어의 해당 문법형태가 일정한 정도로 역할이 약화되어서 없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목적격조사의 유(有)에서 무(無)까지의 통시적 변동코스를 보여준다.

10) ‘위하다’ 류 동사는 일반적으로 체언 뒤에 나타나서 조사와 비슷한 문법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기에 체언후 보조적 동사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것은 조신건(2019)을 참고하기 바란다.

2.9. 서사어에서의 필수적 실현성

- 이 글은 “의미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의미’ 연구의 흐름을 살피고 그 방향을 전망해 보려는 데 뜻이 있다. ‘의미’의 연구사를 돌아보면 ‘의미’는 의미관 또는 의미 이론에 따라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정의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임지룡, 2018)

임지룡 선생님의 논문에서 따온 긴 말이다. 이 말에는 목적격조사가 연이어 네 개가 나타난다. 만약에 이런 목적격조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지 역시 재미있는 문제가 된다.

- 이 글은 “의미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의 발자취-Ø 따라가면서 ‘의미’ 연구의 흐름-Ø 살피고 그 방향-Ø 전망해 보려는 데 뜻이 있다. ‘의미’의 연구사-Ø 돌아보면 ‘의미’는 의미관 또는 의미 이론에 따라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정의되어 왔음-Ø 알 수 있다.

목적격조사가 없어지면 문장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장의 문어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 목적격조사와 같은 격형태는 이런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2.9의 용법은 2.5와 같은 것은 아니다. 관련 사실이 이상하거나 특별하다는 양태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사어의 특징을 부각시키려고 목적격조사를 포함한 격형태를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목적격조사는 목적격 위치에서 일정한 서사어 성격을 보여주기 위한 표기가 된다.

3. 맺음말

백여 년을 연구했어도 많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만큼 한국어 목적격조사의 속성 문제는 아직 복잡하다. 그 중에는 실현성 문제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실현성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다면 해당 문제를 일정한 정도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전통적인 용법에만 치중해서 몇가지 각도로 해석해 왔는데 언어학이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함에 따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방법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방법을 활용해서 더 많은 유형을, 더 많은 각도로 연구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때가 온 것 같다.

이 글에서 목적격조사 실현문제와 관련된 몇가지 유형을 가지고 설명해 있는데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중점적으로 두가지 관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 것이다. 하나는 목적격형태는 격 이외의 기능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목적격범주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형태가 목적격 위치에 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목적격형태가 많이 나타나는 경우 이러한 사용법을 인지언어학의 도상성 등과 이론을 가지고 통일시킬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본다. 일반적인 개념은 무표기인 영형태로, 특수한 개념은 유표기형태로 처리한다는 복잡성 도상성 이론 등이다.

목적격조사와 관련된 문제는 아주 많은데 이 글에서는 다만 실현성을 보여줄 수 있는 몇가지 사실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했을 뿐, 외연성이 더 크고 깊이가 더 있는 경우에 관해서는 향후 후속 고찰을 약속한다.

참고문헌

- Comrie, B. 1981,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The UCP.
- Whaley, L. 1997. Introduction to Typology. SAGE Publications.
- Song, J. J.(송재정). 2001, Linguistic Typology: Morphology and Syntax. The UCP.
- 고석주. 2001, 한국어 조사의 연구: ‘가’와 ‘를’을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 고석주. 2004, 『현대 한국어 조사의 연구 I』, 서울: 한국문화사.
- 고영근, 구분관. 2008, 『우리말 문법론』, 서울: 집문당.
- 김광해. 1981, ‘의’의 의미,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김민국. 2016, 한국어 주어의 격표지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 김유진. 2011, 대화에 나타나는 도치 구문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 김지은. 1991, 「국어에서 주어가 조사 없이 나타나는 환경에 대하여」, 『한글』 212, 한글학회, 69-87.
- 김충실. 2016, 「조선어격조사 생략과 생명도」, 『중국조선어문』 4, 5-12.
- 남기심. 1987, 「국어 문법에서 격(자리)은 어떻게 정의되어 왔나」, 『애산학보』 5, 애산학회, 57-71.
- 목정수. 1998, 「한국어 격조사와 특수조사의 지위와 그 의미-유형론적 접근」, 『언어학』 23, 한국언어학회, 47-78.
- 민현식. 1982, 현대 국어의 격에 대한 연구: 무표격 정립을 위하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선우용. 1994, 국어조사 ‘이/가’, ‘을/를’에 대한 연구: 그 특수조사적 성격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안병희. 1966, 「부정격의 정립(Casus Indefinitus)을 위하여」, 『동아문화』 6,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222-223.
- 언더우드. 1890, 『한영문법』, Kelly & Walsh L'd.
- 엄정호. 2011, 「격의 개념과 한국어의 조사」, 『國語學』 62, 국어학회, 199-223.
- 이기동. 1981, 「조사 ‘에’와 ‘에서’의 기본 의미」, 『한글』 173 · 174, 한글학회, 9-34.
- 이남순. 1998, 「격표지의 비실현과 생략」, 『國語學』 31, 국어학회, 339-360.
- 이익섭 · 채완 · 이상억. 2001, 『한국의 언어』, 서울: 신구문화사.
- 이희자 · 이종희. 1998, 사전식 텍스트분석적 국어 조사의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임지룡. 2018, 「의미 연구의 흐름과 전망」, 『한국어 의미학』 59, 한국어의미학회, 1-30.

- 한정환. 1999, 의미격과 화용격은 어떻게 다른가, 『국어의 격과 조사』, 서울: 도서출판 월인.
- 陆丙甫·金立鑫. 2015, “语言类型学教程”, 上海外语教育出版社.
- 张伯江·方梅. 1994. 「汉语口语的主位结构」, 『北京大学学报』第2期, 66-75.
- 赵新建. 2019, “韩国语体词后补助动词研究”, 世界图书出版公司.

이름: 赵新建(조신건)

소속: 上海外國語大學

주소: 上海外國語大學松江區文翔路1550號 上海外國語學大學東方語學院朝鮮語系

우편번호: 201620

전화번호: 15139953892

전자우편: zxjmhx@sina.com

이름: 金玲(김령)

소속: 上海外國語大學

주소: 上海外國語大學松江區文翔路1550號 上海外國語學大學東方語學院朝鮮語系

우편번호: 201620

전화번호: 13916899480

전자우편: 51292510@qq.com

원고 접수일: 2021.4.20.

심사 완료일: 2021.5.15.

게재 결정일: 2021.5.20.